

투데이 칼럼

한반도 강대국 치킨게임

6월 초 남북한은 각각 8발의 미사일로 세력 과시에 나섰다. 북한은 6월 5일 오전 9시 18분쯤부터 35분에 걸쳐 평양 순안비행장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와 함경남도 함흥 등 4개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라 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와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됐다.

그러자 한미는 이튿날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 동안 지대지 에이태컴스(ATACNS) 8발을 강원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900개 지탄으로 추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위력적인 무기다.

주목해야 할 것은 8발 가운데 미군이 쓴 미사일 한 발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연합 응징 타격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남북한의 신경전은 일촉즉발의 날카로운 국면에 놓여있다. 북한은 을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모두 18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

9일에 한 번꼴로 전례 없이 집중적이고 강력한 도발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움직임도



정복규
논설위원

강경으로 치닫기는 마찬가지다. 응징 보복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군사 대응이 두드러진다.

최악의 충돌 시나리오로 가는 분기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실험을 통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성한 단계다. 추가 핵실험은 소형 전술핵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7차 핵실험에 이어 미 본토를 타격할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릴 경우 미국의 인내력도 바다날 공산이 크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기 투합한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치킨 게임으로 마냥 내달리기에 북한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은 물론 국제정세가 녹록치 않기에 때문이다. 한·미·일의 군사전력이 집중적이고도 긴장된 상태에서 한반도와 인근 수역에 전개돼 있다.

당장 2년마다 실시하는 미군의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훈련이 끝과 북마리아나제도 등지에서 진행된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 군용기 200여 대가 참여한다.

관 엔더슨 기지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죽음의 백조'란 별칭을 지닌 이 전폭기는 북한 도발 정후 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다.

앞서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 무더기 도발에 나선 6월 5일에는 한미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대북 연합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도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 참가한 탄도미사일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북한은 을 들어 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피로감에 빠져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을가을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3연임 성공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야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입장에서 김정은의 도발은 반감을 리 없다.

특히 7차 핵실험의 경우 중국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과정에서 북한을 마냥 감싸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북한 내부의 코로나 상황까지 심각하다. 2500만 명 인구 가운데 확진(유일자)이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김정정은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트위터에 "매우 위험하고 적대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군사 조치나 압박을 하기는 어려웠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 의지를 결정적으로 꺾어버릴 카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는 일단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상수로 놓고 대비책을 짜는 것으로 보인다.

사자로 보는 지구촌 소식

EU, 우크라이나와 몰도비에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에마뉼엘 미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비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햇빛 집회 벌이는 네팔 학생 시위대



지난 23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학생 시위대가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햇빛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휘발유, 경유, 조리용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며 수도 도로를 봉쇄했다.

사설

국회 개점휴업 해의 출장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은 줄줄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명목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3주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 공백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다.

고골가·고유가·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위기 상황이지만 관련 입법 논의도 멈췄다. 이 와중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발길은 국회가 아닌 공청으로 향했다.

6~7월 초 국회의원 해외 출장은 총 21건으로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등 58명이 대상이다. 대통령 특사

방문이나 의원 친선 교류 같은 정부·국회 차원 의원 외교와 함께 개별 의원을 관상에 따른 연구 목적 출장도 눈에 띈다.

2년 넘는 코로나19 유행과 올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던 것이 이번 달에 출장이 몰렸다는 해명도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인기 관광지로 꼽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 의원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주변국과 의원 외교를 강화하고 선진국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판국이다.

의원들이 국회 구성을 미룬 채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건 열치없는 일이다. 상황을 감안하면 뻔뻔한 변명이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주길 바란다.

전북도 인수위 구성 문제

전북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교(52회)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금융 관료 출신 인사로 합리적이고, 직설적인 업무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금융위원장 시절,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 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아직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지역 밀착성이 떨어진다는 경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도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하지만 전체 위원의 90%가 현직 교수로 편중돼 있다.

경제 역할을 해야 할 도의원 당선인도 선거 캠프에 이어 인수위에 다시 합류했다. 인수위원회는 5개 분과에 20명의 인

수위원이 선임됐다.

명단은 △기획조정분과= 분과장 신효균 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석좌교수, 감사위원 안병일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본부장, 위원 이미영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경제산업분과= 감사위원 홍호성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사, 위원 오성현 내일산업 대표이사, 박예나 육육결조 대표이사 △행정지원분과= 분과장 황태규 우석대 관광학과 교수, 감사위원 정효운 전북도의원, 위원 윤영숙 익산시의원, 정영욱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 △환경복지여성분과= 분과장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위원 김현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위원 박진희 우석대 간호학과 교수, 서영미 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문화건설안전분과= 분과장 한동승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감사위원 송재호 원광대 스포츠학부 교수, 위원 황지옥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영훈 전북대 객원교수 등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